러시아 고려인 모국방문단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 방문 취소 이유는

"유랑하듯 힘겨운 삶 보고 마음 아파할라…"

광산구 2000여명 거주 추정
정착돕는 단체 있고 공단 밀집
입소문 퍼지며 고려인 몰려

변변한 기술 없어 일용직 전전
동포들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

고려인 동포들 장흥 우드랜드 방문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150여명이 22일 장흥 우드랜드를 방문, 편백숲을 걷고 있다. /장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고려인 고국 방문단'이 전국 최대 수준의 고려인 거주 지역인 광주 '고려인 마을'을 찾지도 않고 돌아갔다. 애초 광주 방문 시 가장 먼저 예정됐던 계획 변경에는 지역 고려인들의 '아픔'이 담겨 있어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고려인마을과 ㈔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고려인 방문단 150명은 20일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한 2박3일의 광주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고려인 마을 방문을 취소했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 등 주최측은 고려인 방문단의 광주 방문 2주 가량을 앞두고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하며 세부 일정을 조율한 바 있다.

주최측은 방문단의 한국 방문 이틀째인 지난 20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간의 광주 일정 중 첫 행사를 고려인 마을에서 열리는 환영행사로 계획했었다.

이 계획은 사전 답사 뒤 돌연 취소됐고 15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했던 고려인들은 지역 거주 동포들과의 만남을 훗날로 기약해야만 했다.

150년 전 조선 땅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을 떠돌던 고려인들에게 고국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주최측의 판단이 작용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3~5세대 대부분은 한국말에 서투르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까닭에 한국서도 단순 노무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방문단의 고려인 마을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22일 저녁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고려인마을 주민 일부를 초대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인마을은 현재 2000명 이상의 고려인이 광산구 월곡동 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9월말 집계한 759명(439세대)보다 거주인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단 기간 고려인 유입이 급증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내전과 이민족 차별로 인한 생활고 등을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광주 광산구에는 하남공단과 소촌공단 등 공단이 밀집해 있고 이 일대 고려인 마을에 가면 고려인 정착을 돕는 단체(고려인마을)와 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입소문이 퍼진 것도 이들의 한국행을 가속화시켰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 관계자는 "방문단을 이끌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인 마을 방문'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유랑했던 고려인이 모국에서도 힘들게 유랑하듯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맘이 아플 것 같아 끝내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광주를 찾은 고려인 고국 방문단은 2박3일간의 광주·전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경기도로 올라 간 뒤 29일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울, 울진, 강릉, 평창 등을 둘러본 후 러시아로 돌아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경찰,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등 압수수색

장성 요양병원 참사 수사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전남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화재 초기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진화·인명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고 119상황실, 담양소방서, 삼계 119센터에서 상황일지, 상황지령 음성 파일 등 30여가지 자료를 압수,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는 불이 난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지난해 12월 인증 취득)과 운영자가 같은 효은 요양병원(지난 2월 실사 후 심사진행 중)이 적합한 인증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50여가지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장학금 조건 특정지역 교사 복무 약속 안지켰다고…

"교대 졸업자 지위 박탈 지나치다" 판결

특정 지역 교사 복무를 조건으로 도교육감 장학금을 받고 교대를 졸업했으나 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졸업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2일 A(여·2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졸업자 지위 및 교원자격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는 광주교대의 졸업자 지위와 초등학교 교원자격이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이 수업·재학 연한 동안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그 후 징계에 의한 퇴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입학 당시 서약서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졸업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졸업 제외 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A씨는 광주교대와 전남도 교육청 간 신입생 교육감 추천 입학 협약에 따라 전남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2010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했다.

A씨는 졸업 후 5년간 전남 도립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하겠다고 서약하고 매학기 장학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을 봐 합격했다. A씨는 유기정학 60일 징계를 받고 지난 2월에는 졸업사정에서 제외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졸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한국인 아버지+필리핀 어머니〉

확정시 양육비 청구 가능
사회적 파장 클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코피노는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영어 합성어다. 시민단체 등에서 코피노의 친부를 찾아준 사례는 더러 있지만,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교류 확대와 비뚤어진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원룸·상하방서 월세살이 허덕…코리안드림 접고 태반이 다시 돌아가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얼마나 열악하기에…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 온 안세르게이(45)씨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

"오죽하면 러시아에서 광주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려야했을까요."

광주 고려인마을의 '대모'로 알려진 신조야(여·59) ㈔고려인마을 대표는 21일 고국 방문단의 고려인 마을 방문 취소 소식을 접하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광산구 월곡동 주변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대체로 하남공단과 소촌공단 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며 한 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빈손으로 러시아 등을 떠나온 이들은 대체로 3~4평 남짓한 원룸과 낡은 주택에 딸린 좁은 방을 빌려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30~40만원을 감당하기 힘든 고려인 일부는 월곡동 고려인센터에 마련된 3개의 좁다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옛소련 붕괴 후 생활고와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코리안 드림'을 쫓아 한국으로 건너온 고려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어장벽과 '외국 사람'이라는 편견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말도 서툴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던 고려인들은 인근 중소기업과 건설 현장, 식당 등을 떠돌며 채 1년을 못채우고 직장을 옮겨다니고 있다. 노동자가 1년을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던 퇴직금 제도도 고려인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을 꺼린 사업주들이 근무 1년을 앞두고 고려인을 해고하고 있고,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얻을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 습득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마을 쉼터서 만난 이니꼴라야(50)씨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는 까닭에 단기취업(H-2) 5년 체류비자가 만료되는 8월 다시 빈손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할 상황"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고려인 정착을 돕는 이천영(56) 새날학교장은 "고려인 마을에 체류하는 고려인 10명 가운데 3명만 추후 영주권 획득에 유리한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 실정"이라면서 "고국을 찾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해고사실 왜 여친에 말했냐" 직장동료와 술 마시다 주먹다짐

쌍나팔

○…자신이 해고당한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전 직장동료 2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마모(39)씨는 지난 21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 박모(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마씨는 경찰에서 "박씨에게 내가 해고당한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여자친구가 오자마자 해고 사실을 말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32336	1	동구 지산동 315-1 삼성아파트 4동 7층 705호 84.945㎡	아파트	139,000,000 139,000,000	2014타경7764[중복]
2013타경 32688	1	서구 운천로154번길 12, 101동 14층 1407호 [쌍촌동,영지아파트] 84.78㎡	아파트	164,000,000 164,000,000	
2013타경 32978	1	북구 문흥동 1011-2 102동 13층 1310호 49.97㎡	아파트	81,000,000 81,000,000	
2014타경 831	1	서구 금호동 815 호반리젠시빌아파트 203동 14층 1403호 84.9940㎡	아파트	195,400,000 195,400,000	
2014타경 2301	1	동구 산수동 104-3 에이동 3층 303호 93.252㎡	아파트	71,000,000 7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1254	1	광산구 송정동 687 252㎡ 광산구 송도로 323-10 30.51㎡ 부속건물 26.44㎡ 제시외 창고 등 38㎡	대 단독주택	122,975,500 122,975,5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주택30.51㎡사정상67.6㎡
2014타경 2196	1	서구 농성동 365-6 128㎡ 서구 상무대로1177번길 12-3 1층57.30㎡ 2층37.62㎡ 부속건물1.98㎡ 창고1.0㎡ 변소1.0㎡ 제시외 부속가추 등 10.4㎡	대 단독주택	25,077,928 25,077,928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공유자 김용휴지분5분의2 전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961	1	북구 일곡로41번길 44[일곡동], 3층 302호 74.06㎡	다세대	180,000,000 18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2346	1	광산구 양산동 373 2234㎡ 제시외 유실수 감나무 등[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69,220,000 69,220,000	제시외유실수,감나무등포함
2013타경 30156	1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735-1 747㎡[현황일부도로] 제시외 견사 4.9㎡	대	11,337,300 11,337,300	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312	1	나주시 봉황면 덕산리 455 2241㎡	답	51,543,000 51,54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599	1	화순군 화순읍 향정리 114-7 73㎡[임재철지분중감구2,9번지분15분의4전부] 동소 114-19 111㎡[임재철지분중감구1,4번지분15분의4전부] 동소 114-20 150㎡[목록2와지분동일]	대 대 대	46,332,000 46,332,0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만허용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 22643	1	광산구 풍영로길로 15, 1층 127호 [우산동,골든버스월드] 53.82㎡	근린시설	132,000,000 132,000,000	
2013타경 32855	1	북구 본촌동 2859 153㎡ 동소 2859 86.14㎡[사무소]	대 근린시설	114,655,960 114,655,960	일괄매각,임차인 정유여부불분명
[기타]					
2014타경 329	1	광산구 옥동 879-6 3725.5㎡ 동소 879-6 가동 1410㎡ 제시외 기계기구 목록 참조 동소879-6 나동225.83㎡제시외보일러실2㎡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150[옥동,라동] 834㎡ 부속건물74.4㎡ 제시외 공장일부 120㎡	공장용지 공장 공장 공장	3,253,391,470 3,253,391,47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기계기구목록중15,17,18,26,29번소재불명,공장저당법제6조 목록별지기재감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사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7. 8.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7. 15. (화) 10: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가액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치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송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대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